

진정한 인민의 군대, 정의의 무력인 조선인민군의 역사는 80여정상을 헤아린다.

건군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필승불패의 한길을 걸어온 인민군대의 역사가 보여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셔야 군대의 높은 존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도, 창창한 미래도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세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대동야공영권》을 꿈꾸는 일제의 100만대군을 격멸하고 항일대전의 역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가렬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군사작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선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력한 군력,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다!

이 역척의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의 그 존엄한 나날 멀고 험한 철령과 351고지, 초도와 오성산을 비롯한 고지들과 섬초소, 룡해공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하기에 이전 쏘련원수 드미트리 야조브는 김정일령도자처럼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풍모를 완

령장을 모시여 불패의 강군이 있다

벽하게 갖추고있으면서도 령장으로서의 자질까지 겸비하여 문무에 정통한 위인은 일찌기 없시는 위대한 군령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승리자가 될 목표물에 일당백으로 준비하고있는 조선군인들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상태는 가장 높은 현대적수준에 이르렀다고 경탄했던것이다.

실로 제국주의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만드시였으며 공화국

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자위적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조선인민군의 영광의 력사는 또 한분의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였던 선군혁명,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

생 견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멀고 험한 전진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전진시찰의 날들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신 날도 있고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에까지 나가시여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감격의 순간도 있었다.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전술훈련을 지도하신 이야기도 있고 침략세력

이 화악내나는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던 때에 적진의 코앞에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강화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신 사실도 있다. 천에 하였던 최대열점지역의 파도사나운 배길과 철령의 새벽안개, 오성산의 험준한 산악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을 전하고있다.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시여서는 군인들에게 멸적의 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고 전군

의 훈련장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훈련열풍을 일으켜주신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만능의 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주체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이다.

뜻깊은 태양절에도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고 친히 대회를 지도하시며 비행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전군

의 장병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온 겨레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걸으시였던 선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은 그이의 탁월한 정치실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의 주된들이 모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지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의 능력은 바로 실력으로 판가름된다.

김정은원수님은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한 나라를 령도한다는것은 단순히 정치행정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원수님의 실력은 정치행정분야뿐만아니라 군사작전분야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군사작전에서 김정은원수님의 대응능력을 시험해보려다가는 엄청난 대재앙을 불러올수 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 담대한 기상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백두산강군으로 위용펼치며 무적의 총대로 민족의 운명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침략의 꾀음을 짓누른 승리자들의 대회

얼마전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진행된 소식은 사람들속에서 널리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충격을 주는것은 온 나라의 비행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것이다.

비행사는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그 나날 공화국의 평공이 개방되어있었다는 사실은 모두의 가슴에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있다.

원래 평공은 순간도 비우면 안되는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늘도 주권이 미치는 령역이여서는 어느 나라나 항시적인 감시대태를 취하고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개발된 이래, 세계적으로 공군이 태어난 이래 물어볼 여지없는 정설로 굳어진 관례를 깨뜨린 일이 이번엔 평양에서 펼쳐졌다. 온 나라의 비행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대회를 진행한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더우기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낸것은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 때문이다.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도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가장 긴장하고 예민한 지역이다. 대회가 열리던 그날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사상최대규모의 연합공중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었다. 이른바 《맥스 쉐더》라는 이름의 이 연습은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연습이었다. 훈련도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100여대의 비행기가 참가하였다. 말 그대로 남조선의 하늘은 복침을 노린 비행기

들로 가득 덮였었다.

그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비행사대회를 한것도 놀라운것이지만 전국의 비행사들을 다 평양으로 데려와 평공을 개방한 상례에서 행사를 하였으니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격을 표시하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짱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조국수호와 승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없는 누구도 엄두 못낼 일이다.

한마디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는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이 보통이 아니라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하였다. 조선은 지금 제국주의강적인 미국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공화국에 있다는것이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억척같이 새겨진 믿음이다.

지금도 대회장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괴뢰파괴가 덮여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평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며 영웅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가 적들을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화국군대의 최강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사상의

무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이번 대회에서 우리에게선 적들을 전멸게 하는 최첨단무기들과 위력하고 현대적인 군사장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력한것은 인민군대의 불타는 조국수호정신과 투철한 사상정신상태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상의 강자들이 있기에 천만대적도 두렵지 않다고 하시였다.

사상의 힘으로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무찌르는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한 사상의 강군 조선인민군.

TV화면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대회장주석단무대에 전시된 은백색의 한 비행기였다. 1969년 4월 15일 공화국의 평공과에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공화국에 있다는것이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억척같이 새겨진 믿음이다.

지금도 대회장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괴뢰파괴가 덮여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평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며 영웅한 비행사들의 정신세계가 적들을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화국군대의 최강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 사상의

온 나라 인민이 TV화면으로 제1차 비행사대회에서 한 비행사들의 열띤 토론을 들으면서 강렬히 느낀것이 있다. 그것은 저런 사상정신상태에 있는 강군이 있어 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는 금성철벽이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문제없다는것이다.

《임의의 순간에 명령이 내려도 즉시에 출격하여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으로 적들을 전멸시킬수 있게 싸움준비를 완성하겠다.》

《허장성세하는 적들을 우리 식의 비행전법으로 타승하겠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만 내려주십시오.》

... 최고사령관앞에서 다진 심장의 맹세대로 조국수호와 멸적의 의지를 불태우며 영웅한 조선의 비행사들은 대지를 박차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본사기자 주 일 봉

4월의 따듯한 계절에 조국에 체류하는동안 나와 일행은 평양민속공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룡라공룡이관, 서해갑문, 평양지하철도를 비롯해서 여러곳을 돌아봤다. 문수물놀이장을 찾았을 때는 실내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유희히 보냈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거대하기도 하고 웅장화려하기도 한 창조물 하나하나가 인민군대에 의해 건설되었다는것을 알게 됐고 군인들이 많은 일을 하고있는데서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는 국가의 신세를 지는 소비집단으로 되고있는데 조국에서는 인민들이 군대의 덕을 입고있는것이다. 로씨야, 까자흐스탄, 기르기즈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서도 목격한바이지만 군대는 웅당 백성이 먹여살리는것이 당연한 일로 되

선군의 길에 새겨진 뜨거운 사랑

바치신 귀중한 시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나무총대를 찾으신 주제 101(2012)년 8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사연깊은 감나무총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감나무총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감나무총대는 선군혁명도사의 갈피에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로 새겨진 중대, 그것으로 하여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중대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날 중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스린 사랑과 은정을 부여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그들 한평생의 자살의 결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러시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끝없는 선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한초한초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군인들을 위해

약속과 편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지난해 5월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 어떻게 하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하시면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꼭 최고사령관에게 편지를 쓰라고,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가슴뜨거운 약속을 남기시였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려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살아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그이께서는 못내 반가와하시면서 어로전투에서 대단한 성과를 쟁취한 수산사업소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보낸다고, 고맙다고 친필을 보내주시

그토록 귀중한 시간을 아깝없이 바치시였다.

정녕 그날의 이야기는 공화국의 군력에 과연 어떻게 억척으로 다져지고있는것인가를 감동깊이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편지

평양과 동해는 멀리 떨어져있어도 령도자와 평범한 수산사업소종업원들사이에 사연깊은 약속을 지켜 오가는 편지는 믿음과 정성으로 맥박치는 혈연의 정을 수놓으며 나는듯이 전해졌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그들이 보고싶으시여 찬바람을 맞으시며 이곳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편지를 반갑게 보았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 고맙다고 정답아 말씀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에 뜨거운 약속과 진실한 보답으로 오가는 편지야말로 만사람의 가슴을 울리며 력사에 길이 남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군대가 인민을 돕는 경이적인 현실

고있다.

조선에서처럼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것과 함께 사회적부와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일을 떠맡아하는 군대는 없을

언제인가 조국소식을 시정한 룡화물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인들이 건설한 오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가 군대를 위해 부담을 지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군대가 나라를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주고있다고 하시 말씀의 구절구절이 지금도 생각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들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한다.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신 절세위인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국의 군대는 군사전선에서뿐아라 경제건설전선에서도 강군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만 봐도 인민군대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있는가를 잘알수 있는것이다.

최현발전소, 대동강타격 일공장, 인민구장, 룡라 인민유원지, 은하과학자거리, 마시령스키장, 룡류아동병원을 비롯해서 건설규모나 속도, 질에서 사람들의 탄복을 자아내

가는 정이 뜨거우면 어느 정도 뜨거운 법이다. 인민군대의 원민은 인민의 원군으로 되고있으며 가를래야 가를수 없고 땀래야 땀수 없는 이런 순치의 관계를 조국에서는 군민일치, 군민대단결이라고 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친형제, 친혈육처럼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바결음을 함께 하는것이 조국의 모습이고 그래서 조선은 더욱 강한것이 아닌가.

김 미 숙 (재우즈베끼스판동모)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23일 남조선적십자사에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위문전문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진도알바다에서

발생한 려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나어린 학생들

본사기자

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하였다.